

The Keyword XII.

'shalom' - 실 곳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하늘의 안식 'shalom'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 가시나무새

시인과 찬장의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새'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실 곳 없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의 깊은 신앙고백과 같은 이 노래는 명곡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 이유는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실 곳'을 찾는 지친 현대인들의 삶의 갈망이 담겨있다.

2. 다윗의 갈망

결국 신앙은 가시나무새의 고백처럼 '마음'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 '탈진', '소진'의 시대

* **탈진** : Burnout Syndrome. 한자어로 소진(消盡)이라고 한다.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의 통칭. 정신적 탈진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 번아웃 증후군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등록했다. 쉽게말해 번아웃 증후군은 질병이다. (나무위키)

탈진이 질병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무거운 짐 진 자들'에 대한 안식의 메시지가 지금 현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놀랍기만 하다. 의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걸보기에는 멀쩡한데 엔진을 돌릴 기름이 바닥난 상태이다. 그 상태로 달리다 결국 엔진도 타버린 상태를 말한다. 사실 탈진과 소진은 육체적 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마음과 정신이 지쳐 있는 상태이다. 육체는 그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2) 다윗의 갈망

성경에 지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다. 바로 다윗이다. 다윗의 마음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의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었다.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꺼지지 않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7:4이다.

[시편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한가지 열정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이다. 놀라운 고백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 왜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새의 가사처럼 실 곳이 없는가? 그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다른 욕망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윗이 '한 가지'로 고백한 마음의 고백은 다른 모든 자아의 욕망들이 헛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않은 세상의 욕망을 향한 자아들이 결국 다윗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구했다는 것은 이제 진짜를 알았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는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았다. 참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주었다. 그 마음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

(3)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

[역대상 28:2, 12]

2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12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 곳에 성전을 지어 살려고 하였는가? 목동, 아둘람, 헤브론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른 다윗의 열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오늘 지친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3.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오다. shalom.

(1) 예루살렘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의 열망은 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예루살렘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망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예루살렘의 뜻 :** 예루살렘의 히브리어인 '예루살라임'은 '터, 기초'의 뜻을 지닌 '예루'와, 히브리어의 '평화'에 해당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shalom'의 합성어이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축복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소에서 함께 거하는 실재적 장소였다. (다윗의 장막 - 솔로몬의 성전 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축복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과 같은 축복의 터가 있어야 한다.

(2) 하마콧

에덴은 바로 그와같은 장소였다. 하마콧(The Place) 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에덴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명확했다. 하마콧의 장소를 경작하는 일이었다. 그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축복의 장소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3)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는? 샬롬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는? 오늘 현대인들이 서 있는 장소는?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바로 'shalom'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샬롬의 터, 평강의 장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shalom'의 뜻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의 조합이다.

'혼돈 + 연결하다 + 권위 + 제거하다'

혼돈으로 막힌 벽을 제거하는 것이 샬롬이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것이 샬롬이다. 우리 사이에 막힌 최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샬롬이다. 샬롬의 다른 의미는 '값을 지불하다. 완성하다'의 의미가 있다. 누가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가? 예수님이시다.

다윗 때 완성하지 못한,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4) 샬롬 -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공허, 혼돈,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샬롬을 주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사역은 오늘날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의 메세지를 주신 것이다. 그와 같은 인생에 참 생명과 회복을 주기 원하신 것이다.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갈망했던 다윗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

4. 전쟁터가 샬롬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 내면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실재적 임재를 갈망한 다윗의 열망이 신부의 사랑이다. 첫째 계명의 회복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에 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내 삶의 현장이 샬롬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샬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을 모실 샬롬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제 그 샬롬의 왕의 통치를 누리자.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 그 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오늘 그 왕의 음성을 듣자.

“내니 두려워 말라. 샬롬, 샬롬”